

1위 NC·2위 키움, 7번째 맞대결  
독주체제 굳히기냐? 뒤집기냐?

오늘부터 3연전...이재학 VS 브리검 선발 대결

정규시즌 우승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두 팀이 또다시 만난다.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14일부터 16일까지 고척스카이돔에서 주중 3연전 맞대결을 펼친다. 올해 벌써 6번이나 맞붙은 가운데 NC가 4승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단독선두 NC와 이를 추격하며 격차를 좁히려는 키움의 7번째 맞대결이 우선 14일 벌어진다.

선발 맞대결부터 흥미롭다. NC는 올해 키움을 상대로 벌써 2차례 선발등판한 이재학(30)을 또 내세운다. 온타리오와 병타를 한번씩 오갔는데, 5월 27일 경기에선 6.1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를 챙긴 반면 6월 13일 경기에선 1.2이닝 2실점의 부진으로 패전을 떠안았다. 모두 창원NC파크에서였다.

키움에선 '에이스'가 복귀전을 치른다. 1선발 제이크 브리검(32)이 팔꿈치 부상을 떨쳐내고 약 2개월 만에 1군 마운드에 선다. 2019년 브리검이 NC를 상대로 거둔 성적은 4경기에서 2승1패, 평균자책점은 2.52였다. NC에 강했던 만큼 무난한 복귀전도 기대된다.

양 팀 타선에선 12일까지 홈런 공동 2위(16개)를 달린 NC 애런 알테어(29)와 키움 박병호(34)의 거포 맞대결이 흥미롭다. 여기에 최근 타격감을 회복한 NC 박석민(35)과 결승타 제조기인 키움 이정후(22)의 클러치 맞대결 또한 관심을 모은다.

이번 두 팀의 3연전 결과에 따라 선두권 싸움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NC가 워닝시리즈 이상을 거두면 사실상 전반기 독주체제를 완성한다. 반대로 키움이 워닝시리즈 이상을 거두면 NC의 독주체제에 미세한 균열을 가할 수도 있다. 14~16일 고척돔에 유독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내년엔 '류현진 데이'만 두번!  
토론토 '에이스 마케팅' 시동6월 18일, 8월22일 유니폼·모자 팬들에 제공 계획  
류현진 14일 첫 실전등판...25일 개막전 준비 착착

류현진

아직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지만 '에이스 대우'는 확실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류현진(33)을 통해 팬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 시즌 예고됐던 두 번의 '류현진 데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산됐지만, 내년 벌써 두 번의 행사를 계획 중이다.

메이저리그(ML) 사무국은 최근 2021시즌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팀당 60경기 초단기 시즌이지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162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30개 구단은 이 일정에 따라 벌써부터 2021시즌 마케팅 행사 계획을 짜고 있다. 토론토는 13일(한국시간) 2021시즌 프로모션 일정을 일찌감치 발표했는데, '류현진 데이'만 2차례다. 6월 18일 뉴욕 양키스전 때는 류현진 유니폼 1만5000개, 8월 22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전 때는 류현진이 직접 디자인한 모자 1만5000개를 팬들에게 나눠준다.

토론토는 올해도 2차례의 류현진 데이 이벤트를 계획했다. 6월 27일 LA 에인절스전과 8월 30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으로 예정했는데, 코로나19로 모든 일정이 밀리고 취소됐다. 하지만 구단 역사상 투수 최고액(4년 8000만 달러·약 929억 원)을 주고 데려온 에이스를 허투루 쓸 수 없었다. 내년 이벤트를 벌써부터 공지하며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류현진 외에도 랜달 그리척, 캐빈 비시오 등의 행사가 예정되었지만 2차례 이벤트는 류현진이 유일하다.

한편 류현진은 14일 서머캠프 첫 실전등판을 소화한다. 9일 라이프피칭을 마친 류현진은 이날 청백전에서 동료들을 상대할 예정이다. 컨디션 점검 차원의 등판으로 큰 이상이 없는 한 2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개막전 등판이 확실시된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대기록 눈앞' 천재타자 강백호의 이력서

#취미:전설 소환  
#특기:기록 격파

KT의 '천재타자' 강백호는 올해 홈런 5개만 더 보태면 만 21세 이하 타자 최다홈런의 주인공이 된다. 이승엽, 심정수, 김태균 등 전설들을 제치고 맨 위에 선다. 전설들의 반열에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는 강백호다. 스포츠동아DB

데뷔 첫 타석 홈런 등 첫걸음부터 새역사  
홈런 4개 더하면 '만 21세이하 최다홈런'  
이승엽·김태균 등 전설 제치고 1위 등극"4번타자 자리잡아야 국제대회 경쟁력"  
이강철 감독, 팀 해설사 역할 강한 믿음

강백호(21·KT 위즈)가 이력서를 쓴다면 취미는 '전설소환', 특기는 '기록격파'가 가장 잘 어울릴 듯하다. KBO리그 39년 역사상 가장 뛰어난 만 21세 이하 타자의 길을 우직하게 걷고 있기에 과한 수식어가 아니다. KT를 넘어 한국야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남달랐던 첫인상의 여운은 여전히 짙다. 2018년 데뷔한 강백호는 13일까지 통산 298경기서 타율 0.313, OPS(출루율+장타율) 0.912, 54홈런, 183타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으로 범위를 좁혀도 타율 0.323, OPS 1.012, 12홈런의 맹타다. 아직 시즌이 80경기 넘게 남았음을 고려하면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2018년 29개) 경신이 확실시된다.

생애 첫 시즌 30홈런 고지에 올라선다면 대기록이 추가된다. 역대 만 21세 이하 타자의 홈런 순위 1위는 김태균(한화 이글스·58개)이며 그 뒤로 강백호와 이승엽(은퇴·이상 54개)이 나란히 있다. 앞으로 5홈런만 더 보태면 역대 만 21세 이하 최다홈런의 주인공은 강백호로 바뀐다. 그 아래를 살펴봐도 김재현(47개), 심정수(42개·이상 은퇴), 최정(SK 와이번스), 김하성(키움 히어로즈·이상 41개) 등 거물들의 이름이 가득하다. 역

사로 가는 길의 종착지에 임박했다는 의미다.

첫 걸음부터 역사였다. 강백호는 2018시즌 개막전 이었던 3월 24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 3회 첫 타석에서 전년도 다승왕 헨터 노에시를 상대로 솔로포를 때려냈다. 신인의 데뷔 첫 타석 홈런은 역대 6번째였는데, 개막전 데뷔 타석에서 고졸신인이 홈런을 친 것은 강백호가 최초였다. 이후 고졸신인 최초 3연타석 홈런, 고졸신인 시즌 최다 홈런(29개)을 썼다.

올해 6월 17일 인천 SK전에선 통산 276경기 만에 50홈런 고지에 등정했다. 만 20세 1개월 19일만으로 종전 이승엽(만 21세 19일)의 기록을 넘어섰다. 당시 강백호는 "이승엽 선배님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강백호가 깨버린 기록만 해도 벌써 한 손으로 꼽기 어렵다.

국가대표 거포 1루수의 계보를 이을 수 있기에 한국야구에도 든든한 자산이다. 비록 대회 자체가 연기됐지만 올해 발표됐던 2020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 1루수 명단에는 박병호(키움), 오재일(두산 베어스),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김태균 등 30대뿐이었다. 유일한 20대 최지민(29·탬파베이 레이스)의 합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강백호는 당시 외야수로 이름을 올렸지만 현재 포지션 전향에 완벽히 성공했다.

이강철 KT 감독은 "(강)백호가 조금 힘들 때 뭘로 하스 주니어, 유한준 등 앞뒤 타자들이 잘해주고 있어 걱정이 덜하다"며 "백호가 슬럼프를 이겨내 4번타수에 자리잡아주는 게 가장 좋다. 백호 스스로도 이걸 이겨내야 국제대회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강백호의 취미와 특기가 계속된다면 KT의 5강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KT〉 〈한화〉  
주권이 정우람을 찾아간 사연투피치 유형 선배...멘탈 관리 등 조언 얻어  
올시즌 체인지업 위력...팀 '수호신' 우뚝

주권

"인연은 딱히 없는데 그냥 무작정 찾아가요."

지난해 폴타임 불펜으로 첫 발을 댄 주권(25·KT 위즈)은 올해 팀의 수호신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강철 감독은 '가장 강한 투수를 9회보다 먼저 낸다'는 소신에 따라 주권을 셋업맨으로 활용 중이다. 주권은 13일까지 32경기에서 32.2이닝을 소화하며 4승1패11홀드, 평균자책점(ERA) 3.31을 올렸다. 지난해 71경기에서 6승2패2세이브25홀드, ERA 2.99를 기록했던 위용 그대로다.

불펜투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 후사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이 감독과 박승민 투수코치는 매일같이 주권을 비롯한 투수들을 관리 중이다. 시즌 막판 승부처에서 주권을 못 쓰게 되면 이 감독과 박 코치가 가장 손해이기에 주권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주권은 "많이 걱정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힘든 건 없다. 힘들다면 내가 먼저 말씀드릴 테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 감독님께서 요즘 관리해주시려는 게 보이는데 사실 더 많이 나가도 된다"고 강조했다.

평균 구속 140km대 초반의 속구와 체인지업의 투 피치 유형이다. 하지만 타자들은 주권의 체인지업에 타이밍을 빼앗기기 일쑤다. 2016년부터 던지기 시작한 체인지업은 이 감독의 원 포인트 레슨으로 완성됐다. 속구처럼 빠르게 던지라는 주문이 주권을 완성시켰다.

여기에 숨겨진 멘탈 코치가 있다. 주권은 지난 시즌 도중 대전 원정을 떠났을 때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식당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같은 투 피치 유형인 대선배 정우람(35)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후배의 난데없는 방문에도 정우람은 많은 조언, 특히 불펜투수에게 필수인 멘탈 관리 노하우를 건넸다. 주권은 "따로 인연이 없었는데도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리그 최고의 불펜투수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주권의 성장드라마는 현재진행형이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홍상삼

정해영

이창진

## KIA '강한 잇몸'으로 버틴다

베테랑 홍상삼, 15경기 ERA 1.88 '불펜 핵'  
기대주 정해영 ERA 1.59 즉시전력 합격점  
돌아온 이창진, 매경기 안타 만점 리드오프

부상자 속출로 힘든 여름을 보낼 것만 같던 KIA 타이거즈에 단비가 내렸다.

본격적인 체력 싸움을 앞둔 초여름, 힘겹게 중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던 KIA에는 연이어 악재가 터졌다. 내야 핵심자원인 류지혁(26)과 김선빈(30)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란히 이탈한 것이다. 둘은 2~3주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복귀까지는 최소 1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제 몫을 100% 이상 해주던 불펜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무리투수 문경찬이 3연속 경기 3실점의 부진 속에 팔꿈치 통증으로 아예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이로 인해 셋업맨 전상현이 임시 마무리 투수를 맡게 됐다.

필승조 구성이 무너진 KIA는 짐을 나눌 구원투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정규시즌 도중 대체투수를 새로 찾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준비된 예비자원들이 공백을 훌륭히 메워주며 강한 '잇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베테랑 홍상삼(30)과 루키 정해영(19)의 깜짝 활약이다.

지난 시즌 후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된 뒤 KIA에 입단한 홍상삼은 12일까지 올 시즌 15경기에서 1승2패3홀드, 평균자책점(ERA) 1.88을 기록하며 어느새 불펜의 핵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볼로 상대 타자들을 찍어 누르며 매 경기 불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대주료만 여겨졌던 정해영은 즉시전력으로 변신해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4경기에서 2승무패, ERA 1.59를 기록 중인데, 10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에선 멀티이닝까지 소화하며 든든한 허리 역할을 했다.

야수 부문의 공격력 공백은 돌아온 외야수 이창진(29)이 메우고 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 2개월 가량 늦게 시즌을 시작한 그는 복귀 이후 매 경기 안타를 뽑아내며 만점 리드오프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